안전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남양유업
천안공장
공장장

김세종

1964년 설립 이래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를 이끌어온 남양유업은 우리나라 유가공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중심에 있는 천안공장은 약 45,000평 규모의 부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기지로 우유류, 컵커피, 두유, 멸균유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총괄 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김세종 공장장을 만나 그동안 실천해 온 안전보건 철학과 전략을 들어보았다.

글 편집실 **사진** 강권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남양유업 천안공장은 우유, 컵커피, 두유, 멸균유 등 다양한 유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의 핵심 생산기지 중 한 곳이다. 약 45,000평에 달하는 공장 규모에 3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

김세종 공장장은 2024년 부임 이후 생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근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해 나가고 있다.

김세종 공장장은 "안전은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모든 공정에 대해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해 개선하는 활동을 주도해 왔다.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사소한 변화도 간과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야말로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천안공장은 정기적인 안전교육, 비상 대피 훈련, 리스크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달의 한마디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사소한 변화도 간과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야말로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ISO 45001 인증

김세종 공장장은 이러한 안전보건 철학을 실천하며,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음과 같은 핵심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장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첫째,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시스템 강화다. 천안공장은 모든 생산 공정에 대해 사전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작업 중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리스크 관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 건강 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이다.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물질, 소음 등 유해 요인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보호구(귀마개, 방독마스크, 내화학 장비 등)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좌)정한용 안전보건팀 팀장 (우)김세종 공장장

셋째,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다.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예: 화재 대응, 비상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넷째, 직원 참여형 안전보건 제도 운영이다.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 요소나 개선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직원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세종 공장장은 이같은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천안공장이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실천을 통해 안전 수준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천안공장은 최근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하며 안전보건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김세종 공장장은 "ISO 45001 도입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공정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사고 예방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천안공장이 단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생산 현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계획

2025년 하반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전보건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세종 공장장은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이를 직원들이 철저히 준수한다면 생산활동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과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심층 건강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김세종 공장장은 "안전보건 문화는 단지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며, "천안공장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 돕고 지키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진정한 안전보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인드를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경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세종 공장장은 끝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천안공장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이 될 것"이라며,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